

클린스만호 16강전 사우디 '녹색 물결' 넘어라

31일 새벽 1시...4만 관중 사우디 일방 응원 펼칠 듯



클린스만호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16강 고비를 넘어려면 사우디아라비아 홈을 방불케 할 경기장 분위기도 이겨내야 할 거로 보인다.

카타르 도하에서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과 사우디의 16강전이 열리기 사흘이나 전인 27일(이하 현지시간)에도 시내 여기저기서 쉽게 사우디 축구 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우디 팬들은 동아시아인을 만나면 느닷없이 "코리아? 재팬?"하고 묻곤 한다. 한국인이라고 답하면 사우디가 한국을 이기고 8강에 오를 것이라고 호기롭게 큰소리친다. 한국에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원전) 등 빅리그에서 뛰는 특급 선수들이 포진해 있으나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조련 아래 조직적으로 단단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사우디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나름의 '분석'도 내놓는다.

사우디 취재진과 도하 한인사회에 따르면, 사우디 대표팀이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뒤 도하로 사우디 축구 팬들이 몰려들다시피 하고 있다.

이곳에서 건설업을 하고, 가족이 시내에서 한인 식당을 운영하는 박관호 사장은 "며칠 사이에 사우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다들 아시안컵을 보러 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에서 도하까지는 차로 5시간, 제3의 도시인 담맘에서는 3시간 거리다. 운전해서 크게 무리하지 않고 올 수 있는 수준이다.

사우디뿐 아니라 함께 16강에 오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다른 아랍 나라 사람들도 한국보다는 사우디를 응원하는 분위기다.

중동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박 사장은 "가까운 이웃 나라일수록 사이가 나쁘다는 말이 이곳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아랍 사람들은 이웃 나라를 미워하기보다는, 같은 '무슬림 형제국'이라며 응원해주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런 경향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모로코가 아랍 국가로는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르자 아랍 축구 팬들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연합해서 모로코를 응원했다.

한국으로서는 사우디뿐 아니라 아랍 축구 팬 전체를 상대해야 하는 셈이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16강전 경기장을 찾을 '붉은악마'는 2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가 펼쳐질 도하 근교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의 4만4천여 관중석 대부분이 사우디의 '녹색 물결'로 가득 할 거로 보인다.

게다가 사우디 팬들의 응원은 극성맞기로 유명하다. 전동악기까지 동원해 가며 시끄럽게 응원전을 펼친다.

클린스만 감독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는 27일 훈련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장 분위기와는 다르지만, 우리가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우디 축구 팬이 3만명 정도는 경기장에 올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 또한 축구의 일부"라고 말했다.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 태극전사들에게 매우 익숙한 곳이라는 점은 다행이다.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이 경기장에서 치렀다.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같은 경기장에서 모두 소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카타르 대회에서 한국이 그랬다.

결과도 좋았다. 1승 1무 1패를 거두고 사상 3번째로 16강에 오르는 역사를 썼다.

다만, 사우디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폴란드와 경기를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치른 바 있어, 이곳이 생소하지는 않을 터다.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31일 오전 1시 치러진다. /연합뉴스

서아루 11골...광주도시공사, 삼척시청 제압

핸드볼 H리그...5위 올라

광주도시공사가 '디펜딩 챔피언' 삼척시청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5위에 올랐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7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H리그 2라운드 삼척시청과의 경기에서 30-27로 승리했다.

서아루가 11골을 넣으며 활약했고, 김지현은 9골에 8도움을 기록했다.

이번 경기로 광주도시공사는 3승 1무 4패를 기록하며 부산시청(3승 6패)을 6위로 밀어냈다.

초반부터 도시공사는 삼척시청을 상대로 앞서며 경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반 26분 삼척시청 박소연의 골로 12-12 동점을 내준 도시공사는 삼척시청과 한 점 차 승부를 이어가다가, 14-14로 전반전을 끝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도시공사 서아루가 맹활약하며 단숨에 점수 차를 벌였다.

후반 13분, 15분에 이한솔, 박지호의 2분 퇴장 판정이 각각 나왔고, 잠시 흔들린 도시공사는 후반 20분, 23-24로 역전을 허용했다.

후반 25분 삼척시청의 레드카드가 나오며 분위기가 전환됐다. 이한솔이 상대의 파울로 허리가 꺾이는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경기를 이어나가며 투혼을 선보였고 서아루가 득점하며 경기를 26-26 원점으로 돌려놨다.

후반 26분 김금정이 상대의 수비를 돌파하며 골을 넣었고, 이어 김지현이 상대 골대까지 빈틈을 타 여유롭게 득점하며 도시공사는 삼척시청을 밀어냈다.

"엔딩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도시공사는 후반 27분 골문을 비운 채 전원 공격 태세로 전환했다. 경기를 2분여 남겨놓고 도시공사 김지현의 득점이 나왔고, 이어 서아루가 7M 드로우에서 빠른 슈팅으로 골을 넣으며 도시공사는 30-27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김금정(왼쪽)과 서아루가 지난 27일 부산기장체육관에서 열린 삼척시청과의 경기에서 득점 후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광주·전남테니스협회, 생활체육인 시상



지난 27일 광주데일리웨딩컨벤션에서 열린 광주·전남테니스협회'2023 생활체육 랭킹대회 시상식'에서 공로패 수상자들이 상을 받고 있다. <광주테니스협회 제공>

광주·전남테니스협회가 지난 27일 광주데일리웨딩컨벤션에서 '2023 생활체육 랭킹대회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 테니스인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행사는 김성남 광주테니스협회장과 유인숙 전남테니스협회장, 각 부별 랭킹대회 수상자 및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공로패는 이경철 조선훈 지도자, 광주테니스협회 조상철 랭킹관리이사, 김금옥 광주시테니스협회 여자경기부장, 정종택 전남테니스협회 부회장, 박순옥 전남테니스협회 부회장 그리고 신주연 전남테니스협회 여성위원장에게 수여했다.

감사패는 장성규 광주 광산구테니스협회장, 강삼규 광주 중해마루힐배드민턴, 이민규 해남군테니스협회장, 박영재 완도군테니스협회장이 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난해 많은 대회에 참가한 이들 대상으로 한 상도 수여됐다. 지난해 37차례 대회에 참가한 정옥성(백카스클럽)씨, 30차례 대회에 출전한 강옥희(화이팅·중외·문화클럽)씨는 최다참가상의 주인공이 됐다.

2023 랭킹대회 시상에서는 김명화(테다·FTC·DM·수요클럽)씨가 5865점을 얻어 골드부 1위를 차지했고, 조광원(토요피닉스·DM)씨가 2593점으로 일반청년부 1위, 3383점을 얻은 이인영(상록·치평)씨가 일반장년부 1위에 올랐다. 이어 국화부 김금희(화이팅·테크노·5531)씨, 여자금배부 임영순(무등산·남구그린·4405)씨, 여자신인부 민복선(무안일로·2886)씨, 지도자부 김귀태(과기원·ATM·바운즈·3431)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하나카드, 창단 첫 프로당구 PBA 팀리그 우승

SK렌터카와 7차전 혈투 끝 승리

하나카드가 SK렌터카와 혈투에서 승리하고 창단 후 처음으로 프로당구 PBA 팀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하나카드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3-2024 포스트시즌 파이널(7전 4승제) 7차전에서 SK렌터카에 세트 점수 4-1로 승리했다.

이번 정규리그에서 5라운드 우승으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뒀던 하나카드는 준플레이오프에서 에스와이, 플레이오프에서 NH농협카드를 연거푸 제압했다.

파이널에서는 SK렌터카를 맞아 시리즈 전적 4승 3패로 창단 2년 만에 정상상을 정복하고 우승 상금 1억원을 거머쥐었다.

포스트시즌 최우수선수(MVP)는 총 26경기에서 17승 9패, 승률 65.4%로 활약해 하나카드에 우승 트로피를 안긴 무라트 나지 초클루(튀르키예)에게 돌아갔으며 상금 5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하나카드는 세트 점수 1-1로 맞선 3세트 남자 단식에서 응우옌꾸옥응웬(베트남)이 에디 레벤스(베리)에 15-12로 역전승해 승기를 가져왔다. 초클루는 5세트 남자 단식에서 4-5로 밀리던 4이닝째에 하이런 6점을 쓸어 담자 역전된 뒤 5이닝에 백스윙으로 챔피언 포인트에 성공해 11-5로 경기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하나카드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축하하는 모습. <하나카드 제공>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시민덕희
- 2관 외계+인 2부, 클럽 제로
- 3관 영화 스미코구라시 - 튀어나오는 그림책과 비밀의 아이, 노랑: 죽음의 바다
- 4관 위시
- 5관 외계+인 2부
- 6관 시민덕희
- 9관 서울의 봄

7관 싸커들: 신처럼 뛰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 날아라 수제김밥 -, 길위에 김대중, 넥스트 골 윈즈

8관 싸커들: 도그맨, 레트리뷰션, 스토리의 문단속: 다녀왔어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마리퀴리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퀴리

일시: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3

정승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GAC 공모전시 정승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